

광주시·전남도 2017년 결산 송년회전

올해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5·18 정신의 한법 전문 수록'이 선정되고, 수년 동안 제동이 걸렸던 호남고속철(KTX)의 무안공항 경유 문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결되는 등 광주·전남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많았다. 광주시의 올 가장 큰 성과는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융합 등 이른바 '3대 벨리 사업'의 정부 국정과제 반영이다. 향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국정과제에 광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문화콘텐츠융합 등 이른바 '3대 벨리 사업'의 정부 국정과제 반영이다. 향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국정과제에 광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 3대 벨리사업 국정과제 반영

#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 확정

## ■윤장현 광주시장

강소기업 100개 집중육성  
청년 취·창업 정책도 성과

광주시의 올해 가장 큰 성과는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융합 등 이른바 '3대 벨리 사업'의 정부 국정과제 반영이었다. 향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지원할 국정과제에 광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대거 반영되면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윤장현 시장은 27일 광주시장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친환경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융합 등 3대 벨리 사업이 4차 산업 혁명시대를 견인하는 주요 먹거리로 인정받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착공과 에너지산업 특별법 제정으로 에너지벨리 가 탄력을 받고 있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새로운 2.0시대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송암공단에 조성 중인 첨단실감콘텐츠 제작클러스터는 광주의 문화콘텐츠 융합산업 메



카로서 또 하나의 든든한 미래 먹거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윤 시장은 ▲한국전기연구원 분원 착공 ▲에너지산업 특별법 제정 및 에너지벨리 가 탄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등도 광주의 미래를 밝힐 올해의 중요 성과로 꼽았다.

그는 "2017년은 대기업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광주형 공동브랜드 완제품 출시와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면서 "명품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 결과 4개사가 월드클래스 300에 이름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당당한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청년 취·창업정책을 펼친 결과 청년드림사업이 정부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도 이어졌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국비예산 2년 연속 6조 돌파  
185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도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송·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가뭄, 농산물 가격 하락, 조선업 등 전남 주력산업의 경영 악화, 사드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하지만 전남도는 이를 슬기롭게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 2017년을 알찬 해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주요 성과로 ▲지역의 오랜 숙원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으로 확정 ▲2년 연속 국비예산을 6조 원 넘게 확보해 지역 개발을 위한 든든한 발판 마련 등을 꼽았다.

또 ▲전남에 185개 기업이 1조4142억원 투자를 5300여개의 새 일자리 창출 ▲10년 연속 노사협력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전남 관광객 4300여만명 유치 ▲2018 국제수목비엔날레의 국제행사 승인 등 남도문에 르네상스사업 본격화 진입 ▲5년 연속 노인일자리 대상 차지 ▲100원 택시,



중앙시책으로 채택 등도 성과로 내놴다.

전남도는 10년 연속 노사민정 협력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등 56개 분야에서 정부 평가 수상실적을 냈고, 인센티브로 410여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어업 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성과로 꼽았다. 나주에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개장하고,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목포에 국내 최대 규모 친환경수산물산지 직거래장과 함께 수산물수출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다만 전남 인구가 지난 3월 190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 청년도가 지난해보다 4단계 올랐지만 도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를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이 권한대행은 "올해는 비록 힘든 일은 많았지만, 도정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믿고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전남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먼 길 돌고 돌아온 나그네의 휴식처



김은영의 '그림 생각'

### (209) 겨울나무

"내 결코 보지 못 하리/나무처럼 아름다운 시를//단물 흐르는 대지의 가슴에/꿰뚫은 입을 대고 있는 나무//은 종일 하느님을 바라보며/무성한 두 팔 들어 기도하는 나무//눈은 그 품안에 쌓이고/비와 정답게 어울려 사는 나무//시는 나 같은 바보가 만들지만/나무를 만드는 건 오직 하느님뿐"(조이스 킬머 작 '나무')

달콤한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조각신문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올해도 며칠 남지 않은 것 같다. 꽃보다 나무가, 쓰디 쓴 아메리카노보

다 달달한 커피가 더 당기는 걸 보니 무심코 흘려들었던 뒷세대들의 취향과 비슷해지는 것에서 세월도 나와 함께 지나왔음을 알게 해준다.

어쩌면 가장 흔한 말이지만 상투적으로 한해의 의미를 장식하는 대체 불가능한 표현이 "다사다난한 한해"가 아닌 가 싶다. 격동의 한해, 일 년이 아니라 한 십 년은 살아낸 듯한 울 한해를 되짚어보다 독일 낭만주의 풍경화의 대가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1774~1840)의 '겨울 풍경'(1811년 작)을 떠올려본다.

온기라고는 한 군데에서도 느껴지지 않는 겨울 풍경은 너무나 고요하고 스산해서 두렵고 절망스럽기까지 하다. 그 절망적인 풍경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어둠한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안개 속에서 어찌면 신기루처럼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와 있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 화면의 전경에는 바위에 기댄 한 남자가 전나무 잎 사자가상을 올려다보



프리드리히 작 '겨울풍경'(1811년)

며 기도하고 있다. 먼 길을 지향하며 순례했을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목발은 눈발에 던져져 있다. 화면 속에서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이 감돈다. 착시 일망정 극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를 이끌어주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는 그 어떤 것보다 삶의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자연의 단순한 모방을 넘어 시각적 인상과 정신적·정서적 교감을 담아낸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일명 '구원의 풍경화'로서 한해를 열심히 살아낸 우리를 위한 위안과 목상의 세계로 몰입하게 해주는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관장·미술사박사>

## 文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하고 단순해야"

### 교육회의 위원 위촉 간담회 "논의후 내년 8월까지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의 위원 위촉 후 가진 오찬간담회(사진)에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치열하고 신중하게 공론을 모으는 과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특별

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외적 환경,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교육이 더는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은 행복하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안심되도록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은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이고 국가적으로도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과제다.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한 이유"라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든든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일보 65 광주일보 연중 캠페인 | 빈병, 반환하고 환분받아요!

빈병 반환으로 환경 살리고! 보증금 받고! 빈용기 보증금 제도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됩니다

대상용량	규격	2016. 12. 31. 까지 출고된 용기(2016년 12월 31일 기준)	2017. 1. 1. 부터 출고된 용기(2017년 1월 1일 기준)	비고
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른 제품	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마-라이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기타 제품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원/개	130원/개	맥주(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	대형-청주 등

면적 150% 확대 색상 변경

2016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제품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라벨이 훼손되거나 이탈되어 보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제품은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환경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보해양조